

도시가계의 경조비 지출 변화추이와 관련 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of kyongjobi expenditure pattern and the related factors of kyongjobi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부교수 박명숙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류정순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Kyongju Cam.
Associate Prof: Myungsuk Par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Lecture : Joungsoon, Rhu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of kyongjobi expenditure pattern from 1982 to 1996 and the related factors of kyongjobi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 in 1996 has been perform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An average monthly expenditure was 20,036 won during the period, and the increased rate of monthly expenditure was 5.6 times in the past 15 years which was the twice as much as of the total consumption. The ratio of the total kyongjobi consumption was increased about 2 times during the period, and it was 2.96% in 1996. During the period, an average marginal consumption propensity was 0.0379, and it wa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93 to '94. Average income elasticity was 1.743 during the period and found out that it was luxury goods.

The result of Anova and Tobit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consumption, number of earners, age and education had positive effect on kyongjobi. And in Seoul area, house owner, male(head of the household), and professionals spent more on kyongjobi than others. The present problems of custom, spending of kyongjobi, were discussed and the change of the custom was urged.

I. 문제제기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상호부조 관행중의 하나로 경조비를 들 수 있는데, 오늘날의 경조비 지출은 소득이나 다른 가계지출 비목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사치재적 성격마저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숙, 1996).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85-'94) 도시가계의 경조비 지출은 약 5.8배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서 3.8배로 증가한 총소비 지출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6-1991; 통계청, 1992-1995)¹⁾, 가계지출에서 경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며 점점 더 커져가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경조비는 IMF 사태 이후 가계 소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소득 흐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소비 패턴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조비에 관한 연구는 민속의 차원에서 농촌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각기 다른 맥락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가정학에서는 주로 전체 소비 지출에 관한 연구중의 일부분으로 언급된 데 불과하고(강이주, 1988; 양세정, 1991) 경조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그 중요성에 비하여 간과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지출 중 경조비 지출에 초점을 두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조비의 변화추이와 경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경조비 본래의 의미를 살린 부조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수립 및 바람직한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조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발간한 '82년 - '96년의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15년 동안의 경조비 지출구조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하였다. 통계자료를 '82년부터 사용한 이유는 '82년 이전까지는 경조비가 도시가계조사 항목 중 잡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독립적 분석이 불가능하였으나 '82년부터 비목의 세분화로 인해 경조

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조비 지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경조비 지출의 관련요인 및 변수의 독립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횡단분석을 병행하였는데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연구시점에서의 최근 자료인 '96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조비 지출의 관련 요인 또한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후속연구로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982-1996년 동안의 가계의 경조비 지출변화 추이(월평균 경조비, 총 소비에 대한 경조비의 비율, 연도별 경조비와 총소비의 '82년에 대한 비율, 경조비의 한계소비성향, 소득탄력성)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1996년도의 경조비 지출은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며 이들의 경조비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의 고찰

경조비지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인 2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설문 조사를 통한 원자료 분석이다.

먼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이주(1988, 전제서)는 도시가계연보의 20년 동안의 시계열자료를 재구성하여 선택성 소비지출의 특성과 그것이 소비패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경조비가 포함되어 있는 잡비는 선택성 소비지출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양세정(1991, 전제서)은 1970년-1990년까지의 도시가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근로

1) '90년까지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도시가계조사 업무를 담당했으나 '91년부터는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되었고, 도시가계조사 업무도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자가계의 소비지출양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결과에 의하면 경조비, 교제비가 포함된 잡비의 경우 1970년 2.4%이던 것이 1980년 6%, 1990년 무렵에는 14.4%로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서 이 품목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80년대 말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구조 성격을 조사한 류재술(1992)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식료품비와 더불어 경조사 부조금 및 원만한 대인관계와 관련한 잡비가 사회적 생존의 차원에서 핵심적 소비지출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였는데, 실제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비목간 소비구조 중 식료품비 다음으로 경조사비가 포함된 기타소비가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숙은(1996, 전계서) 1985년-1994년까지의 경조비 분석결과 총소비지출 중에서 경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1.7% 정도에서 1994년에는 2.8%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그리고 잡비 중에서 경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에서 18% 정도로 높아졌으며, 경조비의 소득탄력성은 1.249로서 소득의 증가율보다 경조비의 증가율이 더 큰 사치재적 성격이 나타남을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한 경조비 지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저축추진중앙회(1997)는 우리나라 11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천 16명을 대상으로 경조비 사용에 관한 조사결과 1996년 한 해 동안 경조사에 평균 13회 초대받았으며 90%가 넘는 참석률을 보였다. 경조의 표시방법은 90.2%가 현금으로 하고 있으며 선물은 8%에 지나지 않았다. 가까운 친인척의 1회 평균 경조사비는 9만 1천원으로 친구, 이웃 등의 2.4배 규모였으며, 경조사 참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경조'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인 경조사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청첩장을 없애거나 자제하여 '초정범위를 축소하자'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고, 경조비를 없애거나 줄이자, 의식을 바꾸자, 경조행사 자체를 간소화하자 등의 의견이 있었다.

김영숙(1996)은 1995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521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조비 결정요인으로는 가계소득이 상대적 기여가 컸으며, 그

밖에 가구주 학력, 생활양식 변인 중에서 가족지향성, 경조비의 가계부담의 정도와 경조비의 필요성인 지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정혜(1984)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부조 부담이 소득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보고되므로 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경조사비 지출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동아일보와 한솔PCS(1998)가 공동으로 PCS 사용자 717명을 대상으로한 텔레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한달 평균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액수는 5만원 미만 이 절반이상(52.9%)을 차지했으며, 70.7%가 경조사비를 이미 줄였거나 앞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인 경우 그 결과 전체적으로 경조비 지출의 크기가 늘어남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경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반면 원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는 경조비 지출의 구조분석 보다는 관련요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경조비의 개념이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따라 지출의 흐름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들 수치를 가지고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데는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경조비를 축의금, 조의금, 기타경조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조사를 백일, 돌, 생일, 결혼, 환갑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서는 입학, 졸업 축하금, 개업인사, 병문안비 등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조사 시 현금 대신 선물로서 부조했을 경우 이 비용을 경조비로 산정하였는가? 하는 물음이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원래 부조는 현물로 지급되었으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화되면서(한상복, 1980, 147) 경조사시 대부분 현금으로 선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물로서 증여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문화권에서는 현금

은 부적절한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Caplow, 1982, 383-392). 그래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조비 사용과 유사한 행동으로 선물 증여행동(gift-giving behavior)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행해진 바 있다(Banks, S. K., 1979; Belk, R. W., 1982; Wolfenbarger, 1990).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원자료를 가지고 변화추이와 관련변수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경조비 개념을 통계청에서 정의한 개념(통계청, 1997, 246) 그대로 "축의금, 조의금, 기타경조비"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시계열분석자료는 통계청이 발간한 1982년 - 1996년의 '도시가계연보'이며 횡단분석 자료는 1996년 '도시가계연보'로서 표본은 62,799 전도시가계이다. 본 연구에서의 설명변수는 가계소비지출과 관련된 선행연구(최은숙, 1990; 주인숙, 양세정, 1997; 김영숙, 1996) 결과를 토대로 총소비, 거주지역, 주거형태, 가구원수, 취업자수, 가구주의 연령, 성별, 직업, 학력이 고려되었다. 가계의 경제능력은 주로 소득으로 평가되나 소득은 낮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고,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는 근로자의 가구의 소득은 워낙 신빙성이 없는 관계로 모두 0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소득을 경제능력의 지표로 삼고 분석하면 부득이 전도시가계의 1/3이 넘는 근로자 가구를 제외시켜야하는 한계점등이 수반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류정순, 1996; Abdel-Ghany and Sharpe, 1997)에서는 총소비가 경제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총소비를 항상소득으로 간주하고 경제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연도별 총소비와 경조비지

출액수, 총소비에 대한 구성비, 한계소비성향, 평균 소비성향, 소득탄력성, '82년에 대한 비율을 계산했다. 분석을 위한 15년간의 자료는 각각 '96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횡단분석을 위하여는 평균, 백분율, 빈도분포를 산출하고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경조비 지출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 분석을,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조비 지출에 대한 독립변수의 독립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tobit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의 값이 0인 범주가 많을 때 회귀 분석을 하면 추정된 회귀계수가 일반적으로 0으로 편중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Maddala, 1983), 본 연구에서는 경조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가계가 31,885로서 전체 표본의 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분석보다는 다변량 tobit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앞서 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여부를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

$$K_i = a + b1C + b2AR + b3HN + b4NW + b5HA + b6HS + b7HJ + b8HE + b9HO + u \dots\dots\dots (1-1)$$

$$K_i = a' + u' \dots\dots\dots (1-2)$$

식 (1-1)은 경조비의 값이 0보다 큰 가계를 표본으로 하며 K_i 는 i 번째 소비자의 월평균 경조비지출이며 a 는 상수, $b1$ 에서 $b9$ 는 알려지지 않은 회귀계수, C 는 총소비, AR 은 거주지역²⁾, HN 은 가구원수, NW 은 취업자수, HA 는 가구주연령, HS 는 가구주성별, HJ 는 가구주직업, HE 는 가구주학력, HO 는 주거형태, 그리고 u 는 오차이다. 식 (1-2)는 종속변수인 경조비의 값이 0인 가계를 표본으로 하여 독립변수들을 넣지 않고 분석을 하여 상수 a' 와 오차 u' 및 log likelihood for normal의 값을 산출하며 이 모델의 log likelihood값은 Chi-square값을 계산하는데 이용한다. Chi-square값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2) 통계청에서는 지역 정보를 서울과 그 외 지역만 주기 때문에 다른 분류가 불가능하다.

<표 1> TOBIT 분석에 사용된 명목변수들의 정의

변수명	기준변수	가변수
AR(지역)	서울	AR1은 서울이외 지역
HA(가구주 연령)	29세이하	HA1은 30세-40세미만, HA2는 40세-50세 미만, HA3는 50세- 60세 미만, HA4는 60세 이상
HS(가구주 성별)	남	HS1은 여
HJ(가구주 직업)	전문직	HJ1은 기술 및 준전문직, HJ2는 사무직, HJ3는 서비스·판매직, HJ4S는 농어업, HJ5는 기능직, HJ6는 단순노무직
HE(가구주 학력)	9년이하	HE1은 10년-12년, HE2는 13년이상
HO(주거형태)	자가	HO1은 전세, HO2는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chi^2 = -2[\text{식}(1-2) \text{의 분석결과로 산출된 log likelihood for normal} - \text{식}(1-1) \text{의 log likelihood}]$

독립변수들 중에서 총소비와 취업자수는 연속변수이고 나머지는 명목변수인데 이 변수들은 <표 1>과 같으며 통계처리는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경조비의 지출변화 추이

'82년-'96년의 경조비의 지출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도별 월평균 경조비, 총소비에 대한 경조비의 비율, 경조비와 총소비의 '82년에 대한 비율, 경조비의 한계소비성향 및 소득탄력성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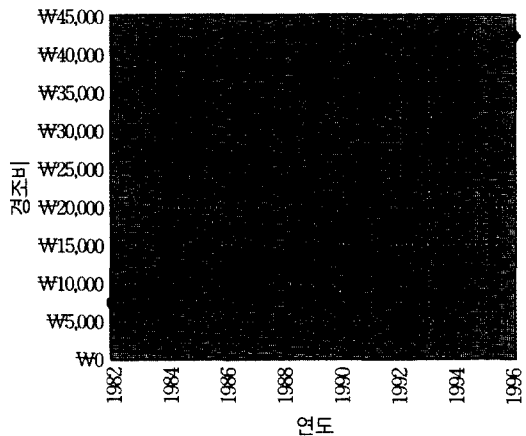
먼저 연도별 월평균 경조비 지출변화를 보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준년도인 '82년 7,578원, '84년 9,642원을 보인 것이 '85년 부터는 평균 경조비가 10,000원대를 넘어섰고, '90년 19,423원을 전환점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는 20,000원대를, '94년-'95년은 30,000원대를 보였으나 '96년 42,404원으로 월평균 경조비가 40,000원대로 증가하여 '82년을 기준으로 볼 때 15년 동안 월평균 경조비의 지출은 약 5.6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는 5.6배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기간별로 보면 '85년부터 '90년까지 6년 동안

은 평균 경조비 지출이 일만원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지출을 보였으나 이후 3년동안('91년-'93년)은 일만원대를 다시 2년 동안('94년-'95년)은 삼만원대를 보여 변화의 속도가 점진적으로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3년-'94년의 경조비 증가 비율은 다른 기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우리 사회의 과소비가 문제시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시기이며 그 현상 중의 하나로 경조비 사용에 있어서도 과소비 혹은 과시소비가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소득의 증가에 따라 경조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김영숙,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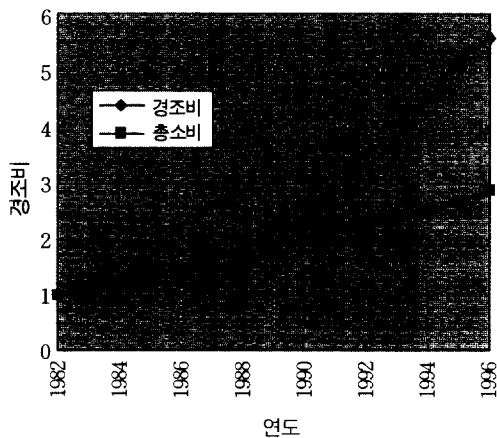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월평균 경조비 지출 추이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7)의 결과와 일치하나, IMF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경조사비를 이미 줄였거나 줄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동아일보와 한솔PCS, 전계서, 1998) 향후 소득의 감소가 예상되는 몇 년 동안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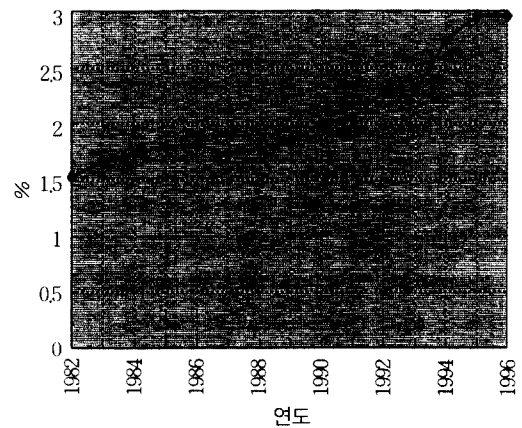
1982년의 총소비를 1로 간주하고 각 연도의 총소비의 '82년에 대한 비율을 비교하였다니 총소비는 28배 증가한데 비해 경조비는 5.6배 증가하여 총소비의 증가율 보다도 경조비 증가율이 2배나 큰 값을 보였다. 총소비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꾸준히 증가한데 비해서 경조비 지출은 '90년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 '92년부터는 총소비와의 격차가 크게 생기기 시작하여 '96년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전체적으로 총소비와 경조비 비율의 흐름을 볼 때 경조비 비율이 총소비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지출 비목중 경조비 사용에 가중치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유교 전통사회에서 경조사 부조금 및 원만한 대인관계와 관련한 잡비가 핵심적 소비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류재술(1992)의 분석과 경조비의 필요성 중 '대인관계 유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김영숙(1996)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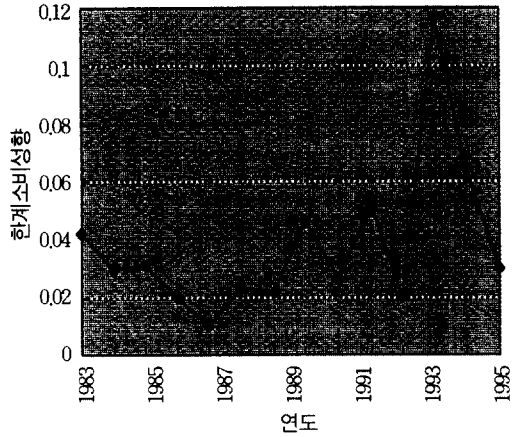


〈그림 2〉 경조비와 총소비의 82년에 대한 비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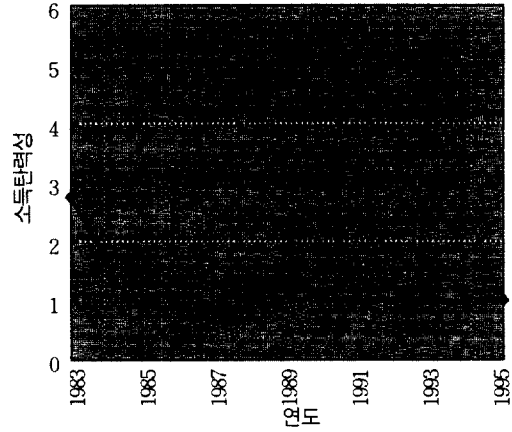
총소비에서 경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82년 1.5%에서 소폭의 증가율을 보인다 '87년에는 1.73%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율을 보인 후 다시 증가율을 보이는 U자형 곡선 형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92년-'93년에는 변화율에 차이를 보이지않다가 '93년-'95년에는 비교적 급경사의 증가율을 보인 후 '95년-'96년에 다시 변화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정책적 효과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93년은 우리나라 문명정부가 출범한 시기로 혼수문화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시기로 서민생활에 이르기까지 범사회적으로 건전한 경조비 문화가 사회전반에 흐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94년, '95년에 이르러서는 억제된 욕구등이 표출되면서 경조비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로인해 다시 과도한 경조비 사용이 가계부담은 물론 경조비의 참의미를 상쇄시킨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경조사비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는 등(중앙일보, '97년 3월 3일) 올바른 경조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였으며 그 결과 '96년 경조비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전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 연도별 총소비에 대한 경조비의 비율변화



〈그림 4〉 연도별 경조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



〈그림 5〉 연도별 경조비의 소득탄력성 변화

〈표 2〉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성격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총 소비	1,588,760원 이상	16,324	26
	1,111,295원 - 1,588,760원 미만	15,821	25
	786,198원 - 1,111,295원 미만	14,904	24
	786,198원 미만	15,750	25
거주 지역	서울	13,554	22
	서울이외 지역	49,245	78
주거 형태	자가	32,915	54
	전세	19,098	31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9,115	15
가구 원수	2인 이하	10,604	17
	3-5인	48,952	78
	6인 이상	3,243	6
취업 자수	1인	30,403	52
	2인 이상	27,569	48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5,264	8
	50세 - 60 미만	10,232	16
	40세- 50세 미만	17,294	28
	30세- 40세 미만	22,878	36
가구주 성별	남	52,766	84
	여	10,033	16
가구주 직업	전문직	11,939	19
	기술공/준전문가사무직	6,699	11
	서비스판매직	6,592	10
	농어업기능직	10,086	16
가구주 학력	단순노무직	27,483	44
	13년 이상	18,180	29
	10년-13년미만	27,291	43
	10년 미만	17,328	28

집단이 댓가성 없이 상호호혜적으로 경조비를 많이 사용하므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순기능적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각 집단 별로 경조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리적 분석이 병행되어야만 이에 대한 해석이 보다 정확하리라고 본다. 가구주 연령과 경조비 사용과의 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고

〈표 3〉 인구통계적 변수별 경조비의 집단간 차이 분석

변수	집단	평균경조비	DMR*	F값
총 소비	1,588,760원 이상 (I 집단)	76,712	A	1649.64**
	1,111,295원 이상 1,588,760원 미만 (II집단)	45,031	B	
	786,198원 이상 1,111,295원 미만 (III 집단)	29,962	C	
	786,198원 미만 (IV집단)	16,539	D	
거주 지역	서울	51,153	A	a192.89**
	서울이외 지역	39,996	B	
가구 원수	7인	61,629	A	31.00**
	6인	54,748	B	
	5인	45,313	C D	
	4인	43,409	C D E	
	3인	40,644	C D E	
취업 자수	2인 이상	38,225	E	262.74**
	1인	49,231	A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69,332	A	447.86***
	50세-60세미만	56,921	B	
	40세-50세미만	39,998	C	
	30세-40세미만	33,299	D	
	30세미만	28,093	E	
가구주 성별	남	44,894	A	a299.09**
	여	29,306	B	
가구주 직업	전문직	50,270	A	44.65**
	기술공/준전문직/사무직	47,365	B	
	서비스·판매직	43,111	C	
	농어업/기능직	41,737	C	
가구주 학력	단순노무직	40,543	C	62.67**
	13년 이상	48,201	A	
	10년-13년미만	40,151	B	
	10년미만	39,869	B	
주거 형태	자가	52,496	A	574.21**
	전세	35,195	B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23,009	C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1, a는 t값임

그 결과 경조비 사용도 많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가능 연령이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55세이며 더구나 IMF 사태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은퇴후의 경조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관 및 규범을 기반으로한 경조비 사용에 대한 지침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전문직과 준전문직 그리고 판매직 및 기능직 세집단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주 학력과의 관계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두집단만이 경조비 크기에 있어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과 경조비 사용과의 관계에서는 남성 가구주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지출을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사회가 여성보다는 남성위주의 사회적 관계망 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가계가 전세나 월세, 보증부월세 및 사글세 가계보다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배제한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tobi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인구통계적 변수별 경조비의 TOBIT 분석 결과

변수	Parameter Est.	Std. Err.	χ^2
intercept	-57665.438	3570.972	260.7704***
총소비	0.01563821	0.000441	1258.37***
취업자수	13110.1923	837.4599	245.0699***
지역(서울) 서울이외 지역	-15632.238	1434.937	118.6798***
가구주학력(10년 미만)			
10년-13년미만	11578.058	1616.986	51.26942***
13년 이상	17577.1541	2043.24	74.00456***
가구주 연령(30세 미만)			
30세 - 40세 미만	1989.31306	2123.514	0.877599
40세 - 50세 미만	13635.477	2278.808	35.80348***
50세 - 60세 미만	60931.7115	2542.37	574.3932***
60세 이상	54981.9947	3030.758	329.108***
가구주성별(남자)			
여자	-26407.732	1816.025	211.4554***
가구주직업(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2808.715	2349.945	1.428565
사무직	6517.4703	2393.526	7.414496**
서비스·판매직	-3161.8235	2253.351	1.968873
농어업	-25031.683	12773.08	3.84051**
기능직	-6032.3396	2081.389	8.399725**
단순노무직	-9530.3939	2696.674	12.49007***
주거형태(자가)			
전세	-12415.512	1417.663	76.69783***
월세/보증부월세/ 사글세	-42384.934	1903.782	495.6655***

$\chi^2=5590.0(df=18)$, Likelihood Ratio: -427520.3339, **p<.01, ***p<.001.

분석결과 총소비와 취업자수, 가구주 학력, 연령은 정(+의 계수를 보임)으로서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주의 학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조비 지출은 증가했고, 가구주의 성별과 주거형태는 부(-)의 계수를 보여 남성이 가구주 가계는 여성가구주 가계에 비하여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별로는 자가 가계가 전세나 월세, 보증부월세 및 사글세 가계보다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분산분석 및 t-test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가구주 직업에 따라서는 분산분석 결과와는 달리 사무직이 전문직보다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공 및 준전문직과 서비스 판매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농어업, 기능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 가계는 모두 다 전문직에 비하여 적게 지출하였으나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과 비교해 볼 때 농어업 종사 가계의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농어촌에서는 이웃간에 경조사시에 범부락적으로 경조하는 풍습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한상복, 전계서, 1980). 또한 단순노무직은 기능직보다도 경조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인적 관계망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 형편이 어려워 경조사시 인사를 생략하거나 혹은 적게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지출이 적은 만큼 경조사 시에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들과 같이 소외된 저소득층의 경조사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회복지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조비의 지출변화 추이를 보기위해 '82-'96년(15년 동안)의 경조비 사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경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해 '96년을 대상으로 횡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2년-'96년의 총경조비의 지출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96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도시가

계의 월평균 경조비는 '82년 7,578원을 기준으로 볼 때 '96년은 42,404원으로 15년 동안 5.6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85년-'90년 까지 6년동안은 일만원대를 이후 3년('91년-'93년)동안은 이만원대의 지출을, 다시 2년 동안('94년-'95년)은 삼만원대의 지출을 보여 경조비 크기의 변화 속도가 6년에서 3년 그리고 2년으로 점진적으로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2년 총소비를 1로 간주하고 각 연도의 총소비에 대한 경조비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경조비 비율이 총소비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고, 총소비는 점진적으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경조비의 경우는 '90년을 넘어서면서 총소비와의 격차를 보여 '96년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총소비에서 경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2년 1.5%에서 소폭의 증가율을 보이다 '8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율을 보인 후 '88년부터 다시 증가율을 보이는 U자형 곡선 형태를 보여주었고, '92년-'93년에는 변화율에 차이를 보이지않다가 '93년-'95년에는 비교적 급경사의 증가율을 보인 후 '95년-'96년에 다시 변화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일로 볼 수 있다.

경조비의 한계소비성향은 평균 0.0379로 나타났으며 '93년-'94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여 0.117로 나타나 소득 증가의 1/10이상이 경조비로 사용됨을 보여주었다. 경조비의 소득탄력성은 평균 1.482이며 '87년과 '93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1이상으로 나타나 경조비 사용이 사치재적 성격임을 보여 주었다.

경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96년 도시가계 자료를 이용해 분산분석과 t-test 그리고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배제한 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분산분석 및 t-test와 tobit 분석결과는 가구주 직업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소비수준이 높고, 서울지역이, 가구원수와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고, 남성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경조비 지출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고 자가 소유자일수록 경조비 지출 또한 높았다.

가구주 직업에 따른 경조비 사용은 분산분석의

결과 전문직일수록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obit분석 결과는 사무직의 지출이 전문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에서는 학력이나 소비수준 등 다른 변수들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 결과 경조비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치재적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 비울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총소비의 비율을 상회하므로서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경조비 비용은 핵심적 소비지출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혼례나 상례시의 상부상조의 기능인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체면중심의 지나친 경조비 사용으로 인한 가계부담등이 야기 될 경우는 부정적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경조비의 본래 의미를 살린 긍정적 경조비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경조비 지출은 사용의 성격상 소비자 선택의 기본원칙인 정보탐색을 통한 효율적 소비가 가능한 재화가 아니므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올바른 '선물 주고 받기' 등의 행동을 통한 어린시절의 바른 가치관 형성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바람직한 경조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올바른 도덕적 규범이 제시되고 이에 대해 일관성있는 가치관 확립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근본적인 가치관의 성립(변화) 없이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경조사비를 단속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을 세운다든가, 결혼, 장례식 비용 규모를 제한하는 등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의 횡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경조비 지출이 증가해 60세 이상 집단의 경조비 사용은 30대가 사용하는 경조비의 2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가능 연령을 볼 때 이시기는 은퇴기로서 가능한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시기는 경조비 지출패턴이 대폭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조사비가 상호호혜적으로 "주

고-받는"관계라고 할 때 변화를 위해서는 '경조사비 사용' 자체의 변화만 가지고는 극복하기 어렵고 혼례문화와 장례문화의 변화까지 통합적 변화가 이루어 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혼례, 장례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를 경조사비로 대체해야되는 맞물림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 자료인 2차 자료를 이용하여 경조비 지출구조와 크기의 변화추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경조비의 사용 개념이 다르므로 연구 결과에 대한 수평적 비교가 불가능하고, 경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은 '96년 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영향요인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수행되지 못한 한계점이 수반된다. 또한 경조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인과 더불어 주관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하나 이에 대한 분석이 배제되어 있어 경조비 사용과 관련된 심리적 효과등을 포함한 추가적 연구가 요망된다. 특히 경조비 사용은 문화적 요인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소비문화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이주,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패턴고찰", 대한가정학회지 6(4), 1989, 87-99.
- 2)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82년 - 1990년
- 3) 김영숙, "도시가계의 경조비 지출구조분석", 소비자학 연구, 제7권 2호, 1996, 1-22.
- 4) 김영숙,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5) 동아일보, "IMF타격 경조사비 줄었다", 1997년 2월 18일
- 6) 류재술, "80년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구조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3(2), 1992, 59-74.
- 7) 류정순,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계의 역사적

-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1993, 1-11.
- 8) 류정순, “한국 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9) 문숙재, 김성희,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가정의 총투자량과 결정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권 5호, 1996, 49-66.
 - 10) 박명희, “국가 경제위기-가정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가정학회 제 51차 춘계학술대회, 1998, 13-23.
 - 11) 소비자보호원, ‘한국가계의 경조비 지출에 관한 조사’, 1997.
 - 12) 양세정,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 1991, 54-67.
 - 13) 주인숙, 양세정, “가계의 소비지출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권 1호, 1997, 277-290.
 - 14) 윤정혜,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1984, 85-100.
 - 15) 임희섭, 박길성,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1993, 169-192.
 - 16) 저축추진 중앙위원회, “경조비 지출 실태 조사”, 1997.
 - 17) 최은숙, “우리나라 소비지출 유형의 변화”, 소비자학 연구, 1권 1 호, 1990, 127-158.
 - 18)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82년 - 1996년.
 - 19) Abdel-Ghany, M. & Sharpe, D. L., “Consumption Patterns Among the Young-Old and Old-Old,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 31, No. 1, 1997, 90-112.
 - 20) Banks, S.K., “Gift-giving: a review and interactive paradig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6, 1979, 319-324.
 - 21) Belk, R.W., “Gift giving involvement on gift select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9, 1982, 408-411.
 - 22) Caplow, T., “Christmas gifts and kin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982, 383-392.
 - 23) Burgoyone, C. B. & Routh, D. A., “Looking a gift-horse in the mouth: when and why money is unacceptable as gift,” 14t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Economic Psychology, K. Dolny ed., Poland, 1989, 24-27.
 - 24) Friedman, Milto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25) Goode, William J., “Industrialization and family structure”, Norman W., Bell and Ezra F. Vogel (eds),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115.
 - 26) Maddala, G. S.,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27) Wolfinbarger, M. F., “Motivations and symbolism in gift giv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 17, 1990, 699-706.